발 간 등 록 번 호
전북교육 2021-523
교육정책연구 2021-020

학생회 예산 시범 운영 학교 사례 분석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스타워즈 (안승언 외 2명)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학생회 예산 시범 운영 학교 사례 분석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1-523
전북교육정책연구 2021-020

발행일 : 2021년 12월 21일
발행인 :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최은경
발행처 :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 (우54927)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전 화 : 063-250-3753
팩 스 : 063-250-3769
인 쇄 : ㈜예원 063-582-3738
ISBN 979-11-91269-22-2

이 연구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든 사람들

연 구 진	안승언	서영여자고등학교
	조소원	서영여자고등학교
	조영서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연구협력진	하늘빛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최규하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연구 자문	김진성	전주효림초등학교 교감
	성경래	상서중학교 교사

연구요약

학생자치권이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학생자치의 법적 보장이 이루어졌지만 교육 현장에 학생자치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의 사례가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자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학생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장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자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에게 주어졌을 때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학생회 예산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된 5곳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면담 연구)를 실행하였다.

2021 전라북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실행한 문헌 연구 결과, 도내 초·중·고교의 학생자치는 학생자치 최종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7가지 요소(학생자치활동의 법적 보장, 학교규칙 제정 과정에서의 학생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교무회의·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발언권 보장, 선거 방식의 변화, 학생자치활동의 다양화, 공간 혁신을 통한 자치 문화 조성)를 충족하여 전반적인 수준에서 '학생자치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생회 예산 시범 운영학교 면담 연구 결과,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학생의 자율성·주체성 증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인식 확대', '학생 요구의 즉각적 반영', '시간·노력 측면에서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성 증대', '학생자치역량 발달' 등의 효과를 거두며 학생자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보가 학생자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절차의 간소화, 독립된 심의·견제 기구로써 대의원회의 역할 강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생자치 예산의 충분한 확보,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의 인식 제고 및 자치 역량 강화, 학생회 대상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교육 시행 등의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문제 ····· 4
3.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4

Ⅱ.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9
2. 설문연구 ····· 10
3. 면담연구 ····· 11

Ⅲ. 연구 결과 분석

1. 문헌연구 결과 ····· 17
2. 설문연구 결과 ····· 28
3. 면담연구 결과 ····· 31

Ⅳ. 결론 ····· 45

참고문헌 ····· 49

표 목 차

<표 1> 설문 연구 대상 목록 ····· 10
<표 2>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설문 문항 목록 ····· 11
<표 3> 면담 연구 대상 목록 ····· 12
<표 4>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면담 문항 목록 ····· 13
<표 5> 2021학년도 학생자치 시수 확보 현황 ····· 17
<표 6> 2021학년도 학생자치 공간 확보 현황 ····· 18
<표 7> 2021학년도 학생자치 예산 1% 이상 확보 현황 ····· 18
<표 8> 2021학년도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 주체 관련 현황 ····· 19
<표 9> 2021학년도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마련 현황 ····· 20
<표 10> 학생회대표의 교무회의 참석,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여부 현황 ····· 21
<표 11> 학생자치 실현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학생자치 요소 ····· 22
<표 12> 설문 문항 1과 응답 ····· 28
<표 13> 설문 문항 2와 응답 ····· 28
<표 14> 설문 문항 3과 응답 ····· 29
<표 15> 설문 문항 4와 응답 ····· 29
<표 16> 설문 문항 5와 응답 ····· 30
<표 17> 설문 문항 5-1과 응답 ····· 30
<표 18> 설문 문항 6과 응답 ····· 31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는 학생회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며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자치권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도 참여권(참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듯, 학생자치권 역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 학생자치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가?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학생들, 심지어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조차 '학생으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인식이나 역량에 따라 학생자치 활동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어른들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자유, 제한된 자유'만이 허용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자치 연구팀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진정한 학생자치권의 의미를 탐색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치권과 참여권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학생자치 예산(학생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 학생회 예산 시범 운영학교학교 5곳을 방문하여 질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2. 연구 문제

연구 문제는 다음 내용과 같다

.

가. 현재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자치권은 잘 실현되고 있는가?

- 학생자치권 실현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인가?
- 학생자치권 실현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 전후 학생자치 활동의 변화

다.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를 위한 교사·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행정적 지원 방안

3.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이 절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개념(정의)을 고찰하고, 이어서 학생자치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가. 학생자치활동의 개념

자치란 '자기의 일을 스스로 다스림',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일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2021)

나. 학생자치활동의 보호

학생자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초·중등교육법」 제 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

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들에게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의 장이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각 조례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학생자치활동을 학생의 기본권으로 밝히고 있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순으로 정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 17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 15조 자치와 참여의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 18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 18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제 17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제 19조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이하 “학생자치활동조직”이라 한다)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운영 등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다. 학생자치활동의 교육적 효과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실험군 A학급과 대조군 B학급의 비교 연구 결과, 학생자치활동은 정치효능감, 체제에 기반한 정치신뢰감, 정치 참여 의지 및 정치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생자치활동 운영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김영현, 2020)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성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공동체 문제 해결의 참여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이광원, 2019)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 참여 경험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고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참여 절차가 잘 준수될수록 중·고등학생이 느끼는 학교 교육의 효과는 제고되었다.(황여정, 2018)

이외에도 학생자치활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학생자치활동이 관용과 비판능력, 자발성, 참여 의지, 의사소통 능력, 세계시민의식, 미디어 리터러시, 창의성, 다문화 개방성 등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지훈, 2014)(박현석 외, 2021)(김경훈, 2014)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바, 학생자치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주제인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연구 주제인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II 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설문연구
3. 면담연구

Ⅱ.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2021년 학생자치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가. 연구 목적 및 대상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현재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자치권은 잘 실현되고 있는가? '를 분석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77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자치현황 조사 통계 결과를 분석하여 도내 학생자치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도내의 학생자치 발달 수준이 어느 수준에 이르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자치실현을 나타내는 지표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 연구 내용

조사 내용을 학생자치활동 시간, 학생자치활동 공간, 학생자치활동 예산,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학생자치활동 학생 참여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학생자치활동 시간 관련

-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도교육청 권장 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초·중학교 연간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연간 17시간 이상)

○ 학생자치활동 공간 관련

-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는가?

○ 학생자치활동 예산 관련

-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처리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자치활동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관련

-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학생자치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학생자치활동 학생 참여 관련

- 학생자치회 대표(학생회장) 당선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2. 설문 연구

가. 연구 목적 및 대상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설문 연구 대상 목록

순	학교명	소재지(도·농)	규모	학생회 임원 수
1	S여중	S군(농)	전체 12학급 학생 247명	
2	H중	J시(도)	전체 29학급 학생 865명	
3	S중	J시(도)	전체 17학급 학생 491명	
4	S고	J시(도)	전체 30학급 학생 907명	
5	S여고	B군(농)	전체 10학급 학생 149명	

나. 조사 내용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보 전후로 학생회 임원이 느끼는 변화에 대해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회가 학생회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표 2〉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설문 문항 목록

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학생회 예산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회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생회 예산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3	학생회 임원 모두가 예산 편성·운영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4	교사,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5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전에 학생회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5-1	이전 학생회와 현재 학생회 비교 시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6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까?

3. 면담 연구

가. 연구 목적 및 대상

두 번째 연구 문제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와 세 번째 연구 문제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학생회 임원,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학생자치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직원 대상으로 면담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3〉 면담 연구 대상 목록

순	학교명	면담 대상자 수	면담 대상자 현황	면담 시간
1	S여중	4	학생회장 1명 부학생회장 2명 학생자치업무담당교사 1명	40분
2	H중	4	학생회장 1명 부학생회장 2명 학생자치업무담당교사 1명	60분
3	S중	4	학생회장 1명 부학생회장 1명 학생자치업무담당교사 1명 학생자치예산 담당 행정직원 1명	40분
4	S고	4	학생회장 1명 차기 학생회장 1명 차기 부학생회장 1명 학생자치업무담당교사 1명	50분
5	S여고	3	학생회장 1명 부학생회장 1명 학생자치업무담당교사 1명	40분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 전후 구체적인 학생자치 활동 양상을 분석하여 개인 수준, 교사·학교 수준, 도교육청 수준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자치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자세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조사 내용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과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회와 교사 간 시각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면담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주체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사업을 경험하며 느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의 장점, 우려되는 점, 운영 전후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면담 연구를 실시하였다.

면담 문항 중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내역'은 예산을 계획적이고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학생회의 자치 역량에 대한 지표가 된다.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중 힘들었던 경험'은 향후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된다. '학생회 예산 사용에 대한 간섭'은 학생과 다른 주체 간 학생회 예산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갈등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 예산 사용에 대한 학생의 주체성 회복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가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끝으로 '회장단 외 학생회 구성원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내역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4〉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면담 문항 목록

문항 번호	면담 문항
1	학생회 예산을 주체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2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을 확보하기 전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학생회 예산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4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5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6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모든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다. 조사 기간 및 방법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5곳을 방문하여 소통하는 면담의 방식을 택하였다. 면담 시간은 교당 약 40분-60분이 소요되었다.

제Ⅲ장

연구 결과 분석

1. 문헌연구 결과
2. 설문연구 결과
3. 면담연구 결과

Ⅲ. 연구 결과 분석

1. 문헌 연구 결과

가. 2021년 학생자치현황 조사

전라북도의 학생자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770개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학생자치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 특수학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수가 극히 적어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없어 결과 분석에서 제외

1) 학생자치 시수 확보

〈표 5〉 2021학년도 학생자치 시수 확보 현황

학교급별	학교 수	권장 시수	시수 확보 학교 수	시수 미확보 학교 수	확보율(%)	평균 시수
초등학교	418	10	392	26	93.78	13.58
중학교	210	10	179	31	85.24	12.00
고등학교	133	17	109	24	81.95	18.00
특수학교	9	10	7	2	77.78	12.00
계(평균)	770	·	687	83	89.22	13.94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도교육청 권장 기준(초·중학교 연간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연간 17시간 이상)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와 관련하여 학생자치 교육과정 시수 확보율은 초등학교 93.78%, 중학교 85.24%, 고등학교 81.9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순으로 학생자치 시수 확보율이 높았으며, 시수 미확보율은 전체 10.66%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자치 시수 확보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입시 부담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공식적인 학생자치활동 시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평균 시수는 18시간으로 권장 기준인 17시간 이상이나, 시수 미확보 학교 수가 많아 학생자치활동 시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학생자치 공간 확보

〈표 6〉 2021학년도 학생자치 공간 확보 현황

학교급별	학교 수	학생자치 공간 확보 학교 수	학생자치 공간 미확보 학교 수	확보율(%)
초등학교	418	188	230	44.98
중학교	210	170	40	80.95
고등학교	133	118	15	88.72
특수학교	9	3	6	33.33
계(평균)	770	479	291	62.21

‘학생자치활동 공간(학생회실)을 마련하였는가? ’와 관련하여 학생자치활동 공간 확보율은 초등학교 44.98%, 중학교 80.95%, 고등학교 88.7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중>초 순으로 학생자치 공간 확보율이 높았으며, 전체 확보율은 62.21%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3) 학생자치활동 예산 관련

〈표 7〉 2021학년도 학생자치 예산 1% 이상 확보 현황

학교급별	학교 수	학생자치 예산 1%이상 확보 학교 수	예산 1%이상 확보율
초등학교	418	381	91.15
중학교	210	188	89.52
고등학교	133	119	89.47
특수학교	9	7	77.78
계(평균)	770	696	90.38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자치활동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와 관련하여 학생자치활동 예산 1% 이상 확보율은 초등학교 91.15%, 중학교 89.52%, 고등학교 89.47%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순으로 학생자치활동 예산 1% 이상 확보율이 높았으며, 전체 평균 확보율은 90.38%로 나타났다. 학교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고, 확보율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그러나 74교는 학생자치예산 편성율이 1% 미만이므로 학생자치예산을 편성 기준 이상인 1%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표 8〉 2021학년도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 주체 관련 현황

학교급별	학교 수	학생회가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을 확보한 학교 수	학생회의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율(%)
초등학교	418	229	54.78%
중학교	210	160	76.19%
고등학교	133	90	67.67%
특수학교	9	3	33.33%
계(평균)	770	482	62.60%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와 관련하여 학생회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율은 초등학교 54.78%, 중학교 76.19%, 고등학교 67.67%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고>초 순으로 학생회의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율이 높았으며, 전체 평균 확보율은 62.6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학생회의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율이 중, 고등학교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생회예산 편성·운영 과정의 복잡함에서 오는 우려 등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회의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율은 전체 평균 62.60%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에 대한 의미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에 있어 학생회가 온전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에 '도달하였다'고 가정하여 조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학생회의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는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을 포괄할 수 있다.

(1) 학생회 예산 중 일부 금액만 학생회의 예산 편성·운영이 이루어진 경우

(2) 학생회의 의사를 일부 반영하여 담당교사가 학생회 예산을 편성·운영한 경우

조사 대상인 학생자치업무 담당교사는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회의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로 해석하여 조사 문항에 응답하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조사 문항은 연구 자료로써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관련

〈표 9〉 2021학년도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마련 현황

학교급별	학교 수	운영규정이 있는 학교 수	운영규정이 있는 학교 수 비율(%)	선거관리규정이 있는 학교 수	선거관리규정이 있는 학교 수 비율(%)
초등학교	418	369	88.28%	377	90.19%
중학교	210	200	95.24%	206	98.09%
고등학교	133	129	96.99%	127	95.49%
특수학교	9	9	100%	7	77.78%
계(평균)	770	707	91.82%	717	93.12%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와 관련하여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이 있는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88.28%, 중학교95.24%, 고등학교 96.99%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중>초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을 마련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비율은 91.8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마련 비율이 중, 고등학교보다 낮게 나타나는 까닭은

(1)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학생자치회를 운영하지 않음

(2)학생자치회를 '다모임', '학교 두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여 모임의 규칙을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위의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자치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와 관련하여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이 있는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90.19%, 중학교 98.09%, 고등학교 95.49%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고>초 순으로 전체 평균 비율은 93.12%로 매우 높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 마련 비율이 중, 고등학교보다 낮게 나타나는 까닭은 앞서 분석한 두 가지(초등에서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마련 비율이 낮은 이유)와 비슷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표 10〉 학생회대표의 교무회의 참석,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여부 현황

학교급별	학교 수	학생회대표가 교무회의에 참석하는 학교 수	교무회의 참석 학교 수 비율(%)	학생회대표가 학운위에 참석하는 학교 수	학운위 참석 학교 수 비율(%)
초등학교	418	108	25.84%	102	24.40%
중학교	210	75	35.71%	86	40.95%
고등학교	133	38	28.57%	42	31.58%
특수학교	9	0	0%	1	11.11%
계(평균)	770	221	28.70%	231	30.00%

‘교무회의에 학생회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와 관련하여 교무회의에 학생회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25.84%, 중학교 35.71%, 고등학교 28.57%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24.40%, 중학교 40.95%, 고등학교 31.58%로 나타났다.

학생회대표의 교무회의/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전체 평균비율은 각각 28.70%, 30.00%로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학생회대표의 교무회의/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비율이 초·고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입시 부담이 적고, 초등학생에 비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나. 도내 학생자치 실태 분석을 위한 논문 연구

도내의 학생자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자치 발달 수준 및 발달 지표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 연구를 실시하였다.

1) 학생자치의 발달단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정구영(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자치활동의 발달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이가 학교 내외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학생자치의 목표로 하는 '생활 규율 강조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인 '지시 수용 단계'는 국가적 가치를 강조하며 집단생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결정권 인정 단계'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자율성 및 학생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현재의 학생자치활동 발달단계는 '시민성 지향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학생자치 실현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정구영(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현재의 학생자치 발달단계인 시민성 지향 단계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학생자치 요소와 연관지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학생자치 실현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학생자치 요소

순	학생자치 요소
1	학교 규칙 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2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보장
3	정책결정과정에서 학생 참여(학생정책결정참여제 등)
4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발언권 보장
5	선거 방식의 변화(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발급)
6	학생자치활동 형태의 다양화
7	공간 혁신을 통한 자치문화 조성

3)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자치권은 실현되었는가?

'시민성 지향 단계'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위의 7가지 요소 측면에서 도내 초·중·고교 학생자치권 실현 여부를 알아본다.

가) '학교 규칙 제정 과정에 학생 참여'가 실현되었는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교 규칙 제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시행한 2019년~2020년 학생자치현황조사 결과 학생위원 40% 이상 확보율은 2019년 67.8%, 2020년 76.2%로, 도내에서 '**학교 규칙 제정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 참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나) '학생자치 활동의 법적 보장'이 실현되고 있는가?

> **「초·중등교육법」(제 17조 학생자치활동)**
>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학교의 장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 18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제 19조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이하 “학생자치활동조직”이라 한다)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운영 등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 18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 17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 15조 자치와 참여의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제 17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

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자치 활동의 법적 보장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 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생의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제 20조 ⑤항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를 두고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41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참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정책 사례로는 여학생의 교복 치마·바지 선택권, 이름표 부착 강요 금지, 학생인권의 날 제정 등이 있다.

위의 예시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책결정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발언권 보장'이 실현되고 있는가?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제 5조, 학생회 ②항)는 학생의 대표로서 학생회장·부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이 시행한 2021학년도 학생자치현황 조사 결과로 보아 학생회 대표의 교무회의 참석율은 28.70%,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율은 30.00%에 그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발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학생 참여 기회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 '선거 방식의 변화(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발급)'가 실현되고 있는가?

전라북도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두고, 학생회 대표에게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시행한 2021학년도 학생자치현황 조사 결과,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을 둔 학교의 비율은 93.12%이고, 학생회 대표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부여하고 있는 학교 비율은 76.36%이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학생회대표 선거 방식의 변화(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발급)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바) '학생자치활동 형태의 다양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학생자치활동 형태의 다양화' 지표는 지역 특수성 또는 학교 문화를 반영한 학생자치활동 사례 배포, 교사들이 만든 학생자치활동 관련 교과서 배포 등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판단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매년 '초·중등 학생자치설명서'를 발간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이 교재에는 학생자치활동의 개념, 학생자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선거 과정부터 특색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어 학생자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교육 강사단'을 운영하여 학생, 교사 대상 학생자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학생자치활동 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공간 혁신을 통한 자치문화 조성'이 실현되고 있는가?

전라북도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8년 째 학생회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 학생자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학생들이 학교 공간과 교실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실시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시행한 2021학년도 학생자치현황 조사 결과, 도내 학교 학생회실 마련 비율은 62.21%이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간 혁신을 통한 자치문화 조성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 도내 학생자치권 실현 여부 진단

위의 7가지 지표로 도내 학생자치권 실현 여부를 진단하여 볼 때 전반적인 수준에서 **'전라북도 내 학생자치권은 실현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도내에서 비교적 학생자치권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공동체로서 학생회를 바라보는 시각, 학생회의 학생자치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에 대한 인식,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발언권 확보 등의 요소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인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가 각 학교와 학생의 특색을 살린 학생자치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꾸준히 안내하는 일이 필요하다.

2. 설문 연구 결과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학생회 임원 52명이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

1) 학생회 예산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회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2〉 설문 문항 1과 응답

문항	학생회 예산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학생회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수	예	아니오
52	47	5
응답 비율	90.38%	9.62%

위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90.38%,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은 9.62%로 학생회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학생들이 '학생회예산 편성·운영권 확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생회 예산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어려움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표 13〉 설문 문항 2와 응답

문항	학생회 예산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전체 응답자 수	예	아니오
52	23	29
응답 비율	44.23%	55.77%

위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44.23%,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은 55.77%로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3) 학생회 임원 모두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표 14〉 설문 문항 3과 응답

문항	학생회 임원 모두가 예산 편성·운영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수	예	아니오
52	37	15
응답 비율	71.15%	28.85%

위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71.15%,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은 28.85%로 학생회 임원 모두가 예산 편성·운영 내역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대다수였다.

4) 교사,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제한을 받은 적 있습니까?

〈표 15〉 설문 문항 4와 응답

문항	교사,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제한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수	예	아니오	기타 응답
52	5	39	8
응답 비율	9.62%	75.00%	15.38%

위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9.62%,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은 75.00%, '기타'로 응답한 학생은 15.38%였다.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제한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제한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학생회 예산을 편성·운영하는데 제한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5)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전에 학생회 활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표 16〉 설문 문항 5와 응답

문항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전에 학생회 활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수	예	아니오
51	23	28
응답 비율	45.10%	54.90%

위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45.10%,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은 54.90%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다음에 이어질 5-1번 문항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설문의 성격을 지니므로 5-1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5-1) 이전 학생회와 현재 학생회 비교 시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표 17〉 설문 문항 5-1과 응답

문항	이전 학생회와 현재 학생회 비교 시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수	예	아니오
46	27	19
응답 비율	58.70%	41.30%

이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58.70%,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은 41.30%로 시범운영학교를 경험하며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방식에 달라진 점을 느낀 학생 수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 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 문항은 객관식 설문으로 학생들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느끼는지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6)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까?

〈표 18〉 설문 문항 6과 응답

문항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수	예	아니오
52	22	30
응답 비율	42.31%	57.69%

이 문항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가를 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방법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되는 문항이다.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42.31%,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은 57.69%로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방법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3. 면담 연구 결과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면담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면담은 학생회 예산 운영 시범학교 5교(중 3교, 고 2교)에서 전체 19명(학생회 임원 13명, 학생자치업무 담당교사 5명, 학생자치 예산 담당 행정직원 1명)이 응답하였다.

가. 학생회 예산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편성, 운영하며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응답자들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의 가장 큰 이점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꼽았다.

"행사를 꾸릴 때 학생들의 의견을 이전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순창 S여중 회장

"저희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순창 S여중 부회장

위의 응답처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나 범위의 확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또래라는 점이 행사나 사업의 목적을 정하고 운영하는데 수월하게 작용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다른 응답자들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의 이점으로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의 절약', '학생자치의 활성화', '학생의 자치역량 발달에 도움' 등의 답변을 했다.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원래는 카드를 쓰려고 하면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서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이 확실히 편해요."

- 부안 S고 부회장

"선생님들보다 학생이 직접 관리하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 전주 H중 부회장

"비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생자치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해요."

- 전주 S고 차기 학생회장

"어른들에게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과 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물건을 선택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경험이 쉽지는 않겠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의식도 느끼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전주 S중
행정업무 담당직원

응답자들은 학생들이 학생회 예산을 사용할 때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교사를 대동하지 않아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많은 효율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회 예산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학생자치 역량이 발달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을 확보하기 전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면담 대상자들은 대체로 이전 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으며, 따라서 시범운영 학교를 경험하기 전후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답변할 수 있었다. 많은 응답자들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을 확보하기 전후 변화로 **'예산 운영에서 학생의 자율성·주체성 증대'**,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을 바라보는 시각 확대'**, **'간편한 지출 방식으로 인한 효율성의 증대'** 등을 꼽았다.

"이전에는 학생들이 학교 행사를 계획할 때 저에게 주로 물어보는 부분들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항상 정해진 예산으로 이 행사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가르마를 타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회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단순히 행사를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남는 예산으로 다음 행사를 꾸리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보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 전주 S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작년에는 행사에 필요한 물건을 그 때 그 때 구매하는 방식으로 학생회가

운영되었다면, 올해에는 큰 틀에서 예산 배분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규모있게 연간 행사를 고려하여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달라졌습니다."

- 순창 S여중 부회장

"일반적인 학생회가 교사의 주도로 학생자치활동이 계획되고 조정된다면, 우리 학생회 집행부는 학생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순창 S여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응답자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예산운영 방식과 달리,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규모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예산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확대되었다.

"저는 (작년에 비해) 훨씬 편해졌죠. 미리 저와 상의하거나 조율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요. 이전 방식대로 하면 저와 상의하고 주문을 해야 하니 반드시 기안을 해야 하고,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지금이 편하죠."

- 부안 S고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일일이 결재 품의를 하지 않아도 되니 간편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수증을 건마다 모아놓고 결제한 내역을 뽑아서 사용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 전주 S고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제가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 없으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편하고 좋습니다."

- 순창 S여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면담에 참여한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들은 대부분 예산 사용 과정에서 업무처리시스템으로 매번 품의 기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편의성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따라 품의 기안을 올리고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사용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간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품의 과정의 생략'은 절차 간소화 이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 학생회 예산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응답자들은 학생회 예산이 대부분 환경의 날, 세월호 추모 행사, 학생 인권의 날 캠페인(사이데이), 스승의 날 행사, 크리스마스 트리컨테스트 등 **'학생들의 주도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자체적인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답변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학생회장 공약 실현'**, **'학생들의 복지 실현'**, **'일상적인 학교 행사'** 등에도 학생회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다.

"요즘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는 아이스팩을 모아 재래상인에게 가져다주는 '아이스팩 모으기' 행사를 진행했어요. 가장 많이 모으는 반에 보상을 주는 형식으로. 환경과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어 뿌듯합니다."

- 전주 H중 3학년 부회장

"보온병, 도시락 같은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로 환경의 날에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그 안에 과자나 음료수를 채워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전주 H중 2학년 부회장

"4월 16일에 노란 색 종이에 세월호 추모 시를 쓰거나 자신의 메시지를 적어 나무에 매달아놓도록 했는데, 등교할 때마다 보이는 노란색 물결이 저에게도 살짝 감동을 주었어요."

- 전주 S고 차기 학생회장

"원래 부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전주 S고 차기 부회장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 중간고사가 있는 날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초콜릿 같은 작은 간식을 챙겨준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좋아해줘서 뿌듯했어요."

- 부안 S고 3학년 부회장

면담 시에도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계획·진행한 학교 행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었다. 응답한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주체적, 자율적으로 학교 행사를 꾸려가며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답변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체육대회를 치르지 못해서, 점심시간에 축구와 농구를 할 수 있는 간이 경기장을 설치해주겠다고 공약했고 완료했습니다."

- 전주 S고 차기 학생회장

"학생들이 급하게 연락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 스마트폰 충전기를 반마다 구입하였습니다."

- 전주 H중 2학년 부회장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스포츠클럽 행사 같은 것은 원래 학교에서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있는데 학생들이 의견을 내서 저는 오히려 갸우뚱했습니다. 학생회 선거 관련 비용은 원래 학생회 예산으로 치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고 학생들이 동의하였습니다."

- 전주 S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위와 같이, 응답자들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학교 문화 행사 이외에 학생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학생회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학생회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 행사 및 프로그램의 진행에 학생회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자들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중 어려웠던 점으로 **'예산 사용의 부담감'**, **'예산 사용 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 **'물품의 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움'**, **'예산 부족'** 등을 꼽았다.

"예산 사용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돈에 관련한 경험이나 지출에 대한 지식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큰돈을 맡게 되고 사용하라고 할 땐 저도 갈피를 못 잡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까."

- 전주 H중 학생회장

"처음에는 회장, 학생회 임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이니 부담스러워 했고, 행정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담을 가져서 조율하거나 뭔가를 하나 구매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 순창 S여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응답자들은 위와 같이 학생들에게 예산 사용과 그에 따른 회계 절차가 생소하고, 수백만원의 예산이 큰돈으로 느껴져 학생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였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잘 진행했는데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은행이나 농협에서 통장을 만들 때, 이런 사업에 대해 은행에서도 생소하다보니까 은행에서도 못미더워하고, 학생회장 명의로 통장을 만들 때도 제출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 전주 H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결제 방법이 어려웠어요. 만약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모바일뱅킹이나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한다면, 학생회장 000 명의로는 결제가 불가능했어요."

- 전주 H중 학생회장

"영수증을 모아서 첨부하거나 하는 작업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예산 사용할 때 영수증을 모아봐서 괜찮지만 우리가 모두 학생들이니까 이런 작업에 익숙하지는 않아서 영수증을 챙겨오라고 당부하지 않으면 받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은행에서 체크카드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점심시간

에 나갈 수도 없고 주말에도 은행이 열지 않으니까 부모님께 계좌 개설을 부탁드리는 수 밖에 없었어요.”

– 부안 S고 학생회장

또한 예산 사용 과정에서 복잡함과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많았다. H중 학생은 공문에 안내된 대로 ‘학생회장 000’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통장 입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S고 학생은 영수증을 모아서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힘에 부쳤다고 응답했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예상하는 일이 아직 어려워서 물품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가 생긴다. 예산에 맞추어 수량을 조절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다.”

– 순창 S여중 학생회장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의 수량이나 개수를 맞추는 게 처음 해보는 부분이라 어려웠어요.”

– 전주 H중 학생회장

물품 수량을 예측하여 적절한 수량을 주문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경험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영역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이 좀 적지 않으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행사에 이만큼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하면서 임원들과 같이 빠듯하다고 생각했어요.”

– 부안 S고 학생회장

“학교 행사 상품으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연간 사용 계획에 따라서 절약하면서 쓸 수밖에 없어요.”

– 순창 S여중 학생회장

위의 응답처럼, 학생회 예산의 부족을 방해 요소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부안의 S고는 학생회에서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0만 원 정도로, 학교 행사를 꾸리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었다. 규모가 작은 학교이기에 주어진 학생회 예산도 적지만, 학생회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학생회 임원 수련회나 학교 행사로 지출하였기 때문이다.

마.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을 거부당한 경험은 없으나 예산 사용 시에는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배지 만들 때도 그랬고 전반적인 행사는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하였는데, 스승의 날 행사 때 조화를 드리자고 했다가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생화가 낫지 않냐 해서 바로 수긍해서 취소하고 생화로 바꿨죠. 그 외엔 없어요."

- 전주 S고 학생회장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는 예산 집행 시에 세세하게 신경쓰고 계시진 않고요. 서류도 만들어주시고 너그럽게 잘해주니 좋습니다."

- 전주 S고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학생들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는지 이야기하고, 스스로 구입을 결정합니다. 저는 그저 피드백 및 조언을 해 줄 뿐이고요.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끼리 약속을 했는데, 나는 다른 건 간섭하지 않을 테니 결제 영수증 출력하는 일만 그 때 그 때 해서 정산하자고."

- 순창 S여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체크카드는) 아무래도 큰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제가 관리를 하는 건데, 선생님께서 관리하는 것이 힘들거나 불안하면 선생님이 맡아주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예산 사용) 제한은 전혀 없었어요. 행사 계획도 그에 따른 사용도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 전주 H중 학생회장

응답자들은 단 한번도 교사에 의해 예산 사용을 제한받거나 지나친 간섭으로 힘들었던 경험은 없다고 답변했다. 학생 스스로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체크카드 및 통장의 분실을 우려해 교사에게 보관을 부탁하거나, 예산 사용 시 교사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많았다.

> "현실적으로 결국은 행정실이랑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선생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현실적으로 돈 관련한 부분은 100%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제의 어려움이라던지 서류 챙기는 문제라던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계속해서 행정실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지쳤구요."
>
> - 전주 H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 "일반적으로 개산급 정산을 하는 것이 사실 드물고요. 이번에도 지침을 받고 이렇게 개산급으로 학생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알게 되어서 학생회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주고 지원해주고 싶어요."
>
> - 전주 S중 행정업무 담당 직원

그러나, 위 H중의 사례처럼 학생들에게 완결성을 요구하는 구입 계획과 증빙 제출이 학생자치의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중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학생회 예산의 성격을 이해하여 최대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학교 공동체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을 학생들의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행정업무 담당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요구된다.

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들은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 방법의 개선 방안으로 **'학생회 예산 사용 절차의 간소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사례 공유'**를 제시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돈이 오니까 적잖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제 개인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다 보니까 혹시나 실수로라도 잘못 쓰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컸고요. 영수증을 잘 해놨던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깜박했을 때 아찔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말하고 싶어요."

- 전주 S고 학생회장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학생자치회에서 예산안이 주어지고 학생이 큰 돈을 관리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매하는 부분과 영수증을 관리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전주 H중 학생회장

"컴퓨터나 재정 관련 업무는 처음해보는 거라서 모를 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작년에 한 시범 예산안 같은 자료가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 전주 H중 3학년 부학생회장

응답자들은 주로 결제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영수증을 모으는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또한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회 예산을 운영하는 새로운 시도를 막막하게 느끼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의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고 예산 사용 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사. 모든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응답자들은 위의 물음에 **'모든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내역을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임원 승인을 받아야 해서 모두 알고 있어요. (중략) 저희 학생회에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학생회에 계획서를 보내고, 세

부적인 계획안, 활동 의의, 목적들을 살펴보고, 저희 학생회와 담당 선생님이 검토를 같이 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승인합니다."

- 부안 S고 학생회장

"사소한 것을 구입할 때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 순창 S여중 학생회장

"예산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대의원회에 알리고, 감시 및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잘 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 순창 S여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예산을 처음에 받기 전에 예산 계획 세우고 대의원회 심의 받았었죠."

- 전주 S중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응답자들은 회기 시작 전에 연간 예산 계획을 세우고 대의원회(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학생회 재정통계부서 등이 그 역할을 대신 함)의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생회가 학교 행사를 추진할 때 임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예산 사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유한다고 응답하였다.

제Ⅳ장

결 론

Ⅳ. 결론

1. 요약

가. 현재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자치권은 잘 실현되고 있는가?

학생자치 실현 여부를 나타내는 7가지 지표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학생자치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학생자치권은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생자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으며, 특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 규칙의 제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제20조)를 보장하고 있었다. 또한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발언권이 보장되었으며(「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5조 ②항), 학생회 대표에게 임명장이 아닌 당선증을 발급하는 등 선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지역특수성과 학교 문화를 반영한 학생자치활동 사례를 교재로 보급하는 등 학생자치활동 형태의 다양화 역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실 설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이 마련되는 등 공간 혁신을 통한 자치 문화가 조성되고 있었다.

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대 전후 학생자치 활동의 변화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이 학생자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연구 및 면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며 학생회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90.38%)하고 있었다. 한편 학생회 예산을 주체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어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44.23%)이었는데, 면담 결과 예산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예산 사용의 부담감, 예산 사용 절차의 복잡함, 예산의 부족함 등으로 드러났다.

학생회 임원 모두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내역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5%였으며, 대의원회나 학생회의 재정 부서 등을 통해 예산 편성·운영 승인과 집

행이 이루어졌다. 42.31%의 학생이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 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 시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제언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사업이 학생자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는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가.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확보의 목적 공유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학교 시범 사업 실시 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각 학교 측에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학생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이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사업은 학생자치권을 실현하고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예산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책임감, 참여의식 등 자치역량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부담감을 덜어내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면담 중 예산 사용 절차의 부담감에 대해 토로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어른들과 같은 수준의 완결성을 요구한다면 학생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 사업이 학생자치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감소될 것이다.

나. 대의원회의 역할 강화

학생 중심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별개로 독립된 예산 심의·감시 기구로써 대의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회가 계획한 학생자치활동이 학생회 임원들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생 모

두에게 유익을 가져오거나 학생 복지 실현에 기여한다고 간주하긴 어렵다. 학생회 내에서 재정 부서 등 예산 사용 관련 부서를 만든다 해도 독립성을 담보할 순 없다.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회가 독립된 견제·감시 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다.

다. 실질적인 학생자치 예산의 확보

면담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열정에 비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생회 예산이 적어 안타까웠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 예산을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 활동에 사용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나 스포츠 클럽 상품 지급, 학생회 임원 워크숍 등 학교에서 매년 진행하는 교육활동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방식은 학생자치권을 실현하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학생자치 활동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치 역량을 성장시킬 기회를 얻는다. **즉, 실질적인 학생자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주도의 학교 행사를 운영하는 비용과 학생회 예산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라.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의 인식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학생자치 활동은 학교 관리자와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의 학생자치 인식 과 역량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는 '학생 지도'의 관점에서가 아닌 학생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학생자치 역량 성장'의 관점에서 학생자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지와 지원이 학생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 관리자나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와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학생회 대상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교육 시행

면담 연구 결과 학생들은 학생자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학생회 예산 사용 계획안을 세우고 영수증을 모아 예산 운영 내역을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자치 교육 및 예산 편성·운영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예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하였다. **즉,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 임원 대상 학생자치 역량 강화 연수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학생회 대표 간 학생자치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학생자치 활성화의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훈. (2014). **학생자치활동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김영현. (2020). **학생자치활동의 초등교육적 함의: 초등학생의 정치적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지, 20(2), 285-304.

김지훈. (2014). **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이광원. (2019).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사회과 교육연구, 26(3), 43-58.

전라북도교육청. (2021). **2021학년도 학생자치현황조사 결과.**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2021). **중등 학생자치설명서.**

정구영. (2020). **초·중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변천 과정**. 경인교육대학교.

황여정. (2018). **학생자치활동이 중고생의 학교교육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등 교육연구, 66(2), 669-699.